



# 恩津宋氏宗報

홈페이지 : ejsong.co.kr

E-mail : ejs0835@hanmail.net

종보는 모든 종원들의  
정성과 동참으로 만들어집니다.

## 연회비 납부 계좌

하나은행 : 609-233549-00205

농협 : 351-1084-0817-03

예금주 : 은진송씨 쌍청당 공파 종중

■ 發行人/宋錫根 ■ 編輯人/宋在億 ■ 印刷人/宋富鎬 ■ 發行處/恩津宋氏大宗會 大田廣域市 大德區 同春堂路 161 ■ 電話 (042)256-0835 / 電送 (042)633-0531

### 〈新年辭〉

## 대망의 새해에 화목과 겸양으로 번영 발전하는 종중이 되기를 바라며

大宗會長 宋錫根



송석근

존경하는 30여만 종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하였던 임인년의 한 해를 역사 속으로 보내고 계묘년 새해가 밝게 떠오르는 태양의 서광을 타고 용트림하며 새 희망과 소원성취의 나래를 힘차게 뻗습니다. 밝아온 대망의 새해에 모든 종원의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고 뜻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지루하게 지속되어온 코로나19로 우리 대종회도 대소행사와 선조님을 숭모하는 세일사도 축소 봉행하는 등 일상의 삶이 칙거되어 원만치 못한 한해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종회는 은송의 송조돈목정신으로 경건히 모시어 오는 고유의 전통문화인 선대조 세일사를 봉행하는 과정을 제수 마련부터 제사를 모시는 절차를 사진과 내용 설명을 기술한 「은진송씨 세일사」와 은송의 훌륭한 할머니들의 숨은 이야기를 담은 은진송씨 가문의 「할머니들 이야기」, 그리고 600여 년 세월을 이어온 은송의 대종회 연혁을 엮은 귀중한 사료인 「은진송씨 대종회 사적(事蹟)」을 편찬 발간하여 우리 은송의 대종회가 양근공 선조님의 “봉선계”를 시원으로 하는 중요한 도서를 발간 배포하였으며, 은송을 홍보하는 “은진송씨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은송인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인터넷으로 자랑스러운 은송을 살펴 볼 수 있어 매일 수많은 종원과 관심있는 일반인들과 소통하는 쾌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선조님이 남겨주신 문화유산 관리는 지방문화재 제37호인 관동묘려를 동구청에서 사업비 8천4백여만원을 들여 재실의 부식 재목 보수, 재실 뜰, 담장 기와 등 재실을 보수하였고 대종회는 추원사 주변의 수목 전지작업과 류조비 산소 잔디 보식, 고사목 벌목, 그리고 산소길 잡목제거 작업을 하였으며, 추산병사의 부식된 기둥 교체와 무너진 담장 보수 등 주변을 말끔하게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4월 11일에 청남대에 개관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의 광장에 암울하였던 일제 강점기에 구국의 일념으로 독립운동한 대한민국임시정부 행정수반 여덟분의 동상을 세

웠는데 제6대 임시정부 주석을 하신, 은송의 자랑스러운 선조님 송병조(宋秉祚)선생님께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이동녕, 김구선생 등과 나란히 계시었습니다. 송병조 선조님은 1877년 12월 23일 평안도 용천도호부 양하면 신창동(현 평안북도 용천군 신암리)에서 출생하시었고 임시정부의 재무장 및 국무회의 주석, 회계 감사장, 임시의원의장 등으로 독립운동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임시정부를 사수하신 자랑스러운 선조님으로 대종회는 동상 앞에 경건히 헌화하였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거년에 새로히 선출된 대종회장을 주축으로 하는 임원의 대종회 운영 원년(元年)으로 새로운 마음 자세로 3년여의 웅크린 일상을 박차고 우리 은송의 고유문화 행사를 활발히 떠나가겠습니다.

은송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은진송씨 홈페이지”와 종보를 더욱 넓고 내실있게 보완하여 은송인이 하나가 되는데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조사업으로 우리의 중시조 쌍청당 선조님의 숭고한 얼과 혈이 우리 후예의 가슴에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은송은 쌍청당 선조님을 바르게 숭조할 때에 은송의 번영과 융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0여 년 전 은송인의 크고 작은 충심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숭모하는 선조님을 받드는 전당으로 건립한 쌍청회관이 불행히도 모 종인과 명도소송 중에 있는데 조속히 원만히 명도받아 먼전날 전 종원의 환호속에 준공식전을 거행하였던 본연의 모습으로 복원하는데 대종회는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은송인의 화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은송의 근원 세거지인 대전권의 대청호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선조님이 남겨주신 유적, 유물과 은송 고유의 전통문화를 찾아 체험 탐방하는 문화활동이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조님이 물려주신 귀중한 재산관리 사업을 파유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종규에 의한 재산관리규칙을 조속히 제정하여 바르고 맑게 운영하는 제도 마련으로 재산손실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 지방문화재 제2호인 쌍청당은 대덕구청과 합의하여 2023년도에는 건물 추녀 훼손 부분 등 귀중한 쌍청당 선조님의 혼이 담긴 유산을 보수하였으며 2023년도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에 포함된 송자고택(宋子古宅) 주변 공원화 추진에 대종회도 적극 참여하여

### 〈新年辭〉

## 토끼같이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자

派有司 會議長 兼 正郎公宗中 會長 宋聖鎬



송성호

존경하는 은송인 가족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늘 큰 감사함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일가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 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새해가 되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올 한해의 무언가 소망을 담아 보기도 하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해 보기도 하지만 매일 똑같은 리듬으로 흘러가는 순간들을 새해 부터는 한 단계 높은 곳으로 가기위해 결심을 더 해보기도 합니다. 새해의 출발은 지난해의 “코로나 19” 사태의 어두운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얼어붙은 서민 경제의 찬 바람과 함께 여전히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 될 수있을까 걱정이 앞선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기롭고, 강인하고, 단호한 마음으로 훌쩍 점프하여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2022년 10월 제2차 파유사회의에서 임기가 만료된 대종회장, 파유사회회장, 감사 등을 새로 선출하고 새롭게 출발 하였습니다. 저 또한 종원 여러분의 성원으로 제15대 파유사회 의장에 선출되어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은송가(恩宋家)는 1546년경 문충공 규암(휘 인수) 선조님께서 만들어 놓은 은진송씨 세보를 송담(휘 남수) 선조께서 보시고 1599년에 800여명의 기해보(己亥譜)가 작성되었으며, 문정공 우암(휘 시열) 선조께서는 1666년에 병오보(丙午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헌공 입재(휘 근수) 선조께서 1887년 19권의 정해보(丁亥譜)를 7년이란 긴 세월을 거쳐 완성하였는데, 이를 청보(淸譜)라 불리고 있으나 안타깝

게도 발행부수가 많지않아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를 복사하여 각 파에 보급할 계획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은진송가는 수백 년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명문거족으로 거듭 날 수 있었으며, 지금은 은송 가족이 30여만 명으로 명실 공히 대 문호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더욱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37년 처음 종중이 발족되었으며, 연년이 이어오면서 은진송씨 세적록 등 여러 종류의 책을 발간하고 교육하여 왔으며, 좀 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1961년 부터는 대종회와 파유사회가 분리되어 예산과 집행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 의장은 회장님과 임원여러분과 함께 당면과제와 또한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협의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운영하면서 선조님들의 업적을 기리고, 닦아서 더욱 빛이 나게 하겠다고 은송인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후손들의 참여를 배가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랑공 종중에서는 동구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2022년 사업으로 종중산야에 사방댐을 건설하고, 도랑에 축대를 쌓아 수해를 방지하고, 도로를 정비하였으며 다하지 못한 댐 주변의 조경 사업은 2023년에 시행하기로 하였고 이미 식목된 9만여 평의 편백나무는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랑공종중이 편백나무 숲을 잘 가꾸어 나간다면 먼 장래에 명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좋은 일이 생기면 더 행복한 일을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새해 되기를 기원 합니다. 지난 한 해 후의(厚意)에 감사드리며 은송인 가족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23년 새해 아침

우암선조님의 고귀한 뜻이 길이 남도록 하고자 합니다.

소제동에 소재하는 “송자고택” 옛 모습의 사진, 고택 구조에 관한 기록 문헌 등의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종원은 대종회로 자료를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대종회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하는 데는 은송인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없이는 성공적인 결실

을 맺을 수 없는 것인바, 항시 격의없는 지도편달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대망의 계묘년 새해에 우리 은송 30여만 종원의 가가호호에 새 복록이 가득히 쌓이고 건강과 행운이 늘 깃들어 만사여의형통(萬事如意亨通)하기를 정중히 기원합니다.

계묘년 새 아침에

### 지평공(諱 繼祀)세일사 봉행

지평공세일사가 2022년 11월 3일 (음 10월 10일) 11시 대전광역시 동구 주산동 지평공 묘전에서 봉행하였다. 아직도 코로나19의 기세가 남아있어 많은 중원이 참석치는 못하였으나 그런 중에도 50여명의 중원이 참제하여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초헌에는 대종손 송교진, 아헌 연안공과 송기선, 종헌 송창공과 송무영, 대



▲ 지평공 세일사 진설

축 추파공과 송희동, 집례 호군공과 송하영, 직일 침사공과 송서호, 집사 삼가공과 송화영, 연안공과 송지영, 진설 호군공과 송덕영이 수고하였고 금년에 새롭게 단장된 지평공 재실에서 선조님 음덕으로 청명하고 온화한 날씨 속에 서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 담소하며 정성껏 준비한 제수로 음복을 하였다.



▲ 지평공 세일사 봉행

### 목사공(諱 遙年), 양근공(楊根公) 세일사 봉행

은진송씨 목사공, 양근공 세일사를 2022년 11월 8일(음10월 15일) 화창한 일기 속에 동구 이사동 목사공 재실인 사산분암(沙山墳菴)에서 대종손(송교진)을 비롯한 대종회장(송석근), 전임대종회장(송태영), 대종회 파유사회 의장(송성호) 등 90여분의 많은 중원이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시어 엄숙히 봉행하였다.

이날 목사공 세일사에서는 직일을 맡은 송용순(동춘당문정공파)으로부터 목사공 선조님의 행장 설명이 있는 후, 송하영(호군공종중) 집례의 창홀로 세일사가 시



작되어 초헌에 송석근(대종회장), 아헌에 송성호(대종회 파유사회 의장), 종헌에 송철기(쌍계당공파) 공사원이 봉행하였으며 대축에 송구영(송창공파), 진설에 송화영(장재유사), 집사에는 송달영, 송지영 중원이 봉행해 주셨다. 이어서 양근공 세일사는 직일에 송우영(안소당공파), 초헌에 대종손 송교진, 아헌에 송석환(진사공파), 종헌에 송진팔(사우당효정공파), 대축에 송석철(삼가공파), 집례와 집사는 전임 중

원이 맡아 봉행하였다.

행사를 마친 후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목사공종중회장과 송석엽(파유사회)의장의 인사 말씀에서 거리의 근원을 불구하시고 경남 합천에서까지 참제하신 중원분들과 금년 한해 중중을 위해 수고하신 전 종원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추후에도 변함없이 중중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인사 말씀을 하였으며, 식순에 의거 충무유사의 중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되었으나, 종중회장이 금년 중무 사항을 총괄하여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정기총회를 마쳤다.



또한, 송서호 종중회장은 세일사에 제주(祭酒)와 헌성금(獻誠金), 음료수 등을 보내주신 대종회와 정랑공종중, 사우당효정공종중, 호군공종중 그리고 약주 1말을 제공해주신 연안공종중 송지영 중원에게 감사드리며, 세일사 준비에 최선을 다한 전 임직원, 특히 장재유사(송화영) 내,외의 진설에 수고가 많았음을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끝맺음하였다.

(목사공종중 총무유사 송기영)

### 대종회 고문 간담회

2022년 11월 22일 대종회 송석근 신임회장은 은진송씨대종회를 위해 헌신하신 고문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참석에는 송준빈, 송동호, 송인식고문과 금번에 새로 고문이 되신 전 송태영회장과 전 파유사의장 송희원고문이 함께하였다. 고문 중 대종손 송교진과 송범섭 고문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였다.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시작된 간담회에서는 중중발전을 위해 쌍정회관 인수문제 등의 현안에 대해 격의없는 의견을 나누었고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청하는 회장의 인사말로 간담회를 마쳤다.



### 문정공 우암(諱 時烈)선조님 송모제 봉행

우암 송시열(1607~1689) 선생의 송모제가 2022. 10. 20(목) 11시에 충북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에서 봉행하였다. 옥천군과 옥천문화원 공동주최, 주관은 옥천청년회의소에서 개최하는데 이는 우암 송시열선생의 정신을 계승, 후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는 행사내용으로는 초헌관은 권영주 옥천부군수, 아헌관은 옥천문화원장 유정현, 종헌관은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전민표가 헌관으로 수고하였으며,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



되진 않았지만 3년 만에 간단한 음복례를 마련하여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송시열선생의 유허비는 충청북도 기

념물 제45호로 지정되었으며, 비석은 선생이 나고 살던 곳을 알리기 위해 정조 2년(1778)에 세운 것으로 단칸 팔작지붕의 비각 안에 있다.

조선 중기의 학자이며 정치가로 노론의 영수인 우암 송시열 선생은 호는 우암이며 본관은 은진이다.

인조 11년(1633)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봉림대군 효종의 스승이 되었다. 병자호란 후 낙향하여 학문에 정진하다가 효종이 즉위하자 다시 관직에 나아가 반청(反淸)의 기치로 북벌계획을 추진하였으며 현종 때에 좌의정에 올랐다.

숙종 15년(1689)에 세자책봉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제주에 귀양갔다.

신문(訊問)을 받기 위해 상경도중에 남인의 책동으로 정읍에서 죽임을 당했으며 후에 영의정의 벼슬을 받았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며 성리학의 대가이다. 이번 송모제는 은진송씨 후손과 후학들에게 정신적 지주임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우암 종중 총무 송봉희)

### 삼가공파 송보경 뇌과학 부분 박사학위 취득

삼가공파 15세손인 송보경은 부친 송인승과 모친 손연희씨 사이에서 대전시 동구 대별동에서 태어나 대전성모여고를 거쳐 한남대학교 생명과학과를 졸업하였다.

서울한국과학기술원(KIST) 뇌과학 연구소에 입사하여 서울한국과학기술

(microglia)의 전기생리학적 변화를 규명한 연구와 Neuroscience Letters에 조현병 생쥐모델 뇌의 해마에서 성체신경발생에서의 세포자율적인 PLC-beta 1의 역할을 규명하였다.

이렇듯 KIST의 뇌과학 연구소에서 외상성 뇌손상, 조현병, 자폐증에 이르는



원연합대학원 대학교(UST) KIST 캠퍼스에서 바이오메디컬 융합 전공, 세부 전공으로는 생체신경과학 석박사통합과정을 졸업 후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KIST에서 연구 활동을 통해 최근 두 편의 논문을 국제학술지 SCI 저널 두 곳에 발행하였다.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IJMS)에 외상성 뇌손상 생쥐 모델의 대뇌피질에서 염증물질의 역할과 신경세포(neurons)와 미세아교세포

다양한 뇌병변 기전을 활발하게 연구하였다.

한편 학위 기간 동안 자가(自家)의 일체 도움 없이 학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받고 뿐만 아니라 연구지원금을 지원받으며 공부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의 도움없이 스스로 박사학위를 받을만큼 성실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은진송의 후손으로써 가히 가문에 영광이고 중중을 빛낼 훌륭한 인재로 국가발전에 큰 기여를 칭찬과 함께 기대한다.

謹賀新年  
順天必存

壬寅年 한 해 동안 보내주신 聲援과 指導鞭撻에 깊은 感謝를 드리며, 癸卯年 새해는 宗員 여러분들의 貴體 大安하심과 家內에 祥瑞로움이 充滿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所願成就하시기를 祈願합니다.  
癸卯年 元旦 恩津宋氏 大宗會 任職員 一同

顧問	清谷 宋 教 辰	大 宗 會 長	信菴 宋 錫 根	常 務 有 司 一 同
〃	日耕 宋 範 燮	派 有 司 會 議 長	錄山 宋 聖 鎬	褒 賞 審 查 委 員 一 同
〃	愚公 宋 俊 彬	派 有 司 會 副 議 長	仁庵 宋 三 德	獎 學 委 員 一 同
〃	沁堂 宋 寅 植	監 事	春谷 宋 龍 淳	文 化 行 事 委 員 一 同
〃	松江 宋 東 鎬	監 事	德岩 宋 在 茂	宗 報 編 輯 委 員 一 同
〃	省齋 宋 泰 永	監 事	宋 信 憲	典 禮 有 司 宋 九 永
〃	臥松 宋 熙 遠			總 務 有 司 宋 寅 哲
				掌 財 有 司 宋 寅 曠



〈新年辭〉

중중을 인식하는 기본 마음의 자세부터 새롭게

목사공중중 회장 송서호



송 서 호

희망차게 밝아 오는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국 각향 각지에 산재하여 은진송씨의 한 중원으로 당당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30여만 중원님들께서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며 하시는 일 만사형통하시는 한 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쁘게 흘러간 임인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서 우리 목사(판교)공 중중의 동향으로 먼저 목사공,양근공 산소 진입로를 재정비 단장하는 사업으로 원주목을 잘 설치하고, 야자매트를 깔아서 오가는 길을 편안하게 조성하고, 연산흥 200그루와 맥문동 2,000포기를 식재하여 봄에는 꽃이 피어있는 곳으로 조성하였으며, 또한 산소 주변 잡초 정비 정리를 며칠에 걸쳐 철저히 실시한 바 있으며, 목사공 재실 사산분암에서 “이사동 유교마을 탐방”의 주제로 리빙인터내셔널, 대전공정관광에서 6 회차를 실시하였고, 절우당, 월송재에서 「다같이 놀자 이사동 한 바퀴」 주제로 대전문화재단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반향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이사동 24인 이야기” (저자 한소민, 조현중, 한정근)란 신작 책자가 발간되어 이사동에 대한 진솔한 내용이 회자되고 있는 바도 있습니다.

중 중발전을 위한 제2차 세미나를 “목사(판교)공 요년의 생애와 정신”이란 명제로 지난 5월 4일자 선조님의

열이 서려있는 목사공 재실에서 송창공과 공사원이자 성균관 원로위원이신 송구영님께서 발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중중을 인식하는 기본 마음의 자세부터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중은 정치 집단도 아니고,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단체도 또한 사회에 봉사하는 단체도 아닌 오로지 같은 성씨를 가진 동성동본의 가까운 일가가 모여서 선조님의 선비정신의 열과 유훈, 업적 등을 봉송하는 송조정신, 친족간 돈목으로 돈독한 우애를 가지고, 먼훗날 후손의 영광된 번영발전을 위해서 오늘날 유지 관리하고 있는 중중의 재산(재실, 건물, 임야, 토지 등)을 잘 관리보전하여 대물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중의 기본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중 업무에 종사하는 우리는 최소한의 중중에 대한 기본 마음, 기본소양 정도는 터득하여야 할 것이며, 개인의 욕망이나 명예에 치우친다면 과연 우리 중중의 앞날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지?

험난한 비판과 자성을 일깨워 중중의 기본질서를 잘 지켜 헌신한다는 기본 마음의 자세로 재삼 각성하고, 중중 운영에 임하여 훌륭한 중원님들의 협조도 구하고, 격려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여 중중을 인식하는 기본 마음의 자세로부터 새롭게 준비하는 계묘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은진송씨 전 중원님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 올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계묘년 원단에

〈新年辭〉

도의를 회복하고 전통을 계승하자

司直公宗中 公司員 宋琦洙



송 기 수

다사다난했던 임인년 한해가 지나가고 계묘년의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존경하는 30만 중친 여러분들께 삼가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우리 중중의 막중한 대임을 초임자로서의 중친 여러분의 지대한 해량을 바랍니다.

생각하여 보면 임인년 한해는 대내외로 급변하는 사회 현실과 예측 할 수 없는 코로나19가 삼년 째 유행하여,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늘 안정되지 않는 한해였음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이겨나가는 중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또한 늘 강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서 언제나 번영의 선두에서 계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은진송씨는 대전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의 토착 성씨로서 유교문화를 발전시키며, 대대손손 살아오고 있는 전통적인 대 혈족입니다.

지금의 세대를 가르키어 도덕의 붕괴 세대 또는 윤리의 부재 세대라고 한탄스러운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의 개념이 바로잡혀 있을 때 사회질서는 정확하게 유지될 것이고 가정의 붕괴와 청소년의 탈선도 방지될 것입니다.

가정과 학교와 사회는 우리 자녀들의 참교육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게 되고

자녀들은 큰 꿈을 키우고 그 꿈을 펼쳐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선조들의 전통과 열을 지키며 계승 발전시키는데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역사와 전통을 지켜나가는 민족은 크게 발전하고, 그러하지 못하는 민족은 쉽게 쇠락하는 사실들을 세계 역사를 통하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국가도 사회도 가정도 그 나름대로 전통을 꼭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은진송씨 문중은 훌륭한 선조님들의 유형. 무형의 전통과 문화유산이 타 문중에 비하여 월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급진적인 발전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많은 문화유산이 훼손 또는 매몰되어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으며 자손들은 막을 수가 없이 마음만 안타까워하였습니다.

많은 유물들이 소유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분실되거나 타인에게 양도되는 사례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전통문화가 전통 그대로 계승되지 아니하고 본질은 사라지며, 형태는 변형되어 가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30만 중친 여러분들께서는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매진하기를 바라며, 끝으로 중친 여러분의 건강과 각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묘년 원단에

동춘당 문정공파 문중 대중회 방문

2022년 12월 5일 동춘당문정공파 도유사 송용순과 송택번, 송영빈, 송성빈, 송용길 중원이 대중회를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송택현씨는 신간 서적 “세월이 흐르면 2” 50권을 기증하였다.

시 (詩. 券1)인 “세월이 흐르면 1”에 이어 기증한 “세월이 흐르면 2”는 서(序, 券3)와 기(記, 券4)로 산문이

다. 일종의 산문집인 셈이다.

이 책은 송택번의 조부님이신 경남(耕南) 송조빈선생이 가장이 된 후인 20대 후반부터 80세까지 근 50여 년 동안 경향(京鄕) 각지를 유람하면서 느낀 바를 서(序)와 기(記)로 남긴 것이다.

따라서 송담공 남수의 『해동산천록』 이후 풍야공 정희의 『남유록』

으로 이어지는 기행산행문집으로 1920년대부터 1981년 사이에, 곧 일제 강점기, 해방정국, 6.25 전쟁, 5.16 군사혁명, 10월 유신으로 이어지는 격변기에 전국의 각지를 여행하면서 느낀 감정을 시와 산문으로 남긴 경남선생의 문집은 문화유산답사기(耕南 文化遺産踏査記)이다.

이 책을 간행한 송택번은 경남 송조빈 선생의 장손자이다.

선대의 위업을 계승하기 위해 은송의

후세 자손들이 효제의 마음과 송조의 정신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번역하여 간행하였다.



謹賀新年  
所願成就

謹賀新年



壬寅年 한 해 동안 보살피 주심과 보내주신 많은 協助에 感謝드리오며, 癸卯年 새해에도 貴宅에 瑞氣滿堂하시고 家庭에 健康과 幸運이 늘 함께하시기를 眞心으로 祈願합니다.

癸卯年 元旦 恩津宋氏 各派 公司員 一同

延安公派 宋奇善  
監役公派 宋春永  
霽月堂文僖公派 宋寅茂  
護軍公派 宋寅珪  
高敞公派 宋泰永  
安素堂公派 宋宇永  
三嘉公派 宋福永  
將仕郎公派 宋翰燮  
松月齋公派 宋鍾永  
醉翁堂公派 宋寅元

忠順衛公派 宋鎬德  
進士公派 宋錫煥  
通政公派 宋錫燦  
松窓公派 宋九永  
四友堂孝貞公派 宋鎮适  
僉使公派 宋瑞鎬  
清風公派 宋百淳  
慈山公派 宋利永  
雙谿堂公派 宋哲基  
同春堂文正公派 宋龍淳

判官公派 宋斗植  
秋坡公派 宋桂鏞  
野隱忠顯公派 宋重鎬  
水壺公派 宋在殷  
負喧堂公派 宋在鋼  
珍山公派 宋久鎬  
尤庵文正公派 宋永文  
長城公派 宋濬鎬  
茂朱公派 宋在烈  
牟隱公派 宋在環

牛峰公派 宋永俊  
圭庵文忠公派 宋在雄  
三杞堂公派 宋亨憲  
東波公派 宋永大  
潛夫公派 宋秉茂  
後庵公派 宋珠永  
主簿公派 宋晃憲  
將仕郎公派 宋秉洙  
榮川公派 宋永植

### 主簿公派宗中 定期總會 開催

지난 2022년 11월 3일 (음 10월 10일) 사제감 주부공과 중중 정기총회가 주부 공선조님 세일사 봉행 후 주부공 선조 묘소 제절 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2022 회계년도 중무 및 재정에 관한 상무유사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인준처리와 함께, 임원진의 임기가 만료되어 앞으로 4년간 주부공과 중중을 이끌어갈 새 집행부로 회장에는 송광헌 (宋晃憲) 현 총무를, 감사는 송병대씨를 새로 선출하였으며, 회장이 지명한 총무

에는 송신헌씨를 인준처리 하였다. 또한 지난 10월 25일 2022년도 은진송씨 정기총회 당시 쌍청당상을 수상한 송익호씨는 상금 50만원 전액을 주부공과 중중 기금으로 誠金 하였다. 새 집행부는 崇祖睦族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고 선조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타의 모범이 되는 중중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주부공과 공사원 송광헌)

### 관동묘려(류조비재실) 보수공사 완료

관동 지역은 추원사와 류조비 묘소 그리고 집단공 명의 유허비 등 우리 은송인의 본이 모셔져 있는 성지로서 특히 관동묘려(류조비 재실)는 대전광역시 지방문화재 자료 제37호로 지정된 문화재이다. 이에 대중회에서 대전 동구청에 문화재 보수요청을 여러 번 건의하였으며, 2018년도에 동구청에서 시비와 구비 약 8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기와 보수와 서까래 교체공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2021

년도에도 문간채 기와 고르기 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다. 그리고 금년에는 대전 동구청에서 시비와 구비 약8천4백만원을 들여 재실 뒤편의 부식된 재목 교체공사와 건물 전체의 뜰을 보령 남포석으로 교체하였으며 관동묘려 담장의 부분 손질과 기와 전면 교체공사를 8월에 착공하여 11월 18일 공사 완료하여, 관동묘려가 지방문화재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 종원 송승민 전기 및 전자공학 부분 박사학위 취득



송 승 민

송승민은 부친 송석해와 모친 정영희씨 사이에서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3동에서 태어나 부산동천고등학교를 거쳐 부산대학교 전자공학부를 졸업 후 한국과학기술원 (KAIST)에서 전기 및 전자공학과를 공부하여 「그래핀 트랜지스터의 소

자 구조 및 직접 공정 개발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여 지난 11월 24일 공학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이는 장래가 촉망되는 은송의 후손으로써 자랑스럽고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여 은송의 자긍심을 높여주길 바랍니다.



### 대중회장 신임 인사차 대전시 예방

2022년 12월 2일 대중회장은 대전시장을 신임 인사차 예방하였다. 대중회는 송석근 대중회장, 송서호 목사공중중 회장. 송용순 동춘당문정공과 도유사, 그리고 송인한 장재유사가 동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장우시장님은 “대전의 명문거족인 은진송씨 대중회에서 신임회장과 임원들이 찾아주어 고맙다” 고 인사말을 하였고 내가 동구청장을 할 때 장재유사(송인한)은 함께한 인연이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대중회장은 “시장님을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바르게 열심히 할 때부터 감동받았으며 대전시정을 맡아 훌륭히 선정을 펴 나가는 것을 우리 문중의 모든 중원이 높이 치하의 찬사를 보내 드린다” 는 덕담으로 인사를 나누었다. 대전시가 이사동에 「의례관」 건립 등 지역개발사업은 시장님께서 국회의정 활동시에 예산을 확보한 것을 착공치 못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의례관」 을 착공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듣고 송서호 목사공중중 회장이 「의례관」 건립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이사동 진입로 불편 사정을 설명하고 도로확장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송용순 동춘당문정공과 도유사는 학연의 동문수학(同門修學)의 정답을 나누며 우리 은송의 많은 협조를 건의하며 우의를 돈독히 하였다. 그리고 대중회장은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에 대전 지방문화재인 은송의 우암 선조님의 “송자고택(宋子古宅)” 주변 공원에 대하여 공원의 목적이 송자고택을 옛 모습으로 복원하여 대전시민들에게 문화 활동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송자고택과 남간사에 옮겨 보존하고 있는 송자고택의 사랑채인 기국정(紀菊亭)과 옛 문헌에 있는 2만 여 평의 아름다운 소제호를 복원하여 옛 모습의 대전 지방문화재의 체형상이 되는 공원 조성을 건의하

였고, 송자고택이 옛 모습을 복원하는 것은 좋은 의견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공원의 명칭은 공원의화주(主)가 송자고택 보존이므로 “송자소제공원” 또는 1820년 자료 문헌에 “대전소제호공원” 으로 명명하였다는 사실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대전시장 신임 인사차 예방은 이렇게 화기에애하였다. 돌아오면서 우리 문중의 삼가공과 송인석 대전시의회예결위원장을 만나서 은송의 자긍심과 위상을 높이는 훌륭한 은송인임을 치하하고 위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충충히 발걸음을 뒤로하였다. 앞서 2022년 11월 22일에는 대중회장, 총무유사, 장재유사, 동춘당 문정공과 송용순도유사가 최충규 대덕구청장을 예방하였다. 이 자리에서 대중회장은 그동안 은송의 문화재를 잘 관리해 주어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쌍청당은 대전 지방문화재로서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해 줄 것과 쌍청당 건물의 보수와 건물 뒤 담장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한편 송인한 장재유사는 실무진들과 협의하여 위의 일들을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하였다. 또한 11월 23일에는 대중회장, 총무유사, 장재유사가 박희조 동구청장을 예방하였다. 이 자리에서 대중회장은 동구에 산재한 은송의 여러 문화재에 대한 설명과 지역사회에서의 은송의 역할을 설명하고 관동묘려의 문화재 보수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였다. 동구청장과 대전 역세권개발 중 송자고택 주변 공원과 계획의 명칭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동구 마산동의 류조비 산소 가는 길에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반사경 등을 설치할 것과 교행이 가능하도록 도로 중간중간에 도로확장, 추원사 주변의 제초작업 등에 대한 동구청의 협조를 건의하였다.

恭賀新年  
天災雪消



謹賀新年



壬寅年 한 해 동안 宗事に 많은 協助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甚深한 感謝를 드리며,  
癸卯年 새해에도 변함없이 聲援을 부탁드립니다 宗員 여러분의 家庭마다 幸運이 가득하시고  
모든 일에 所願成就하시기를 祈願합니다.  
癸卯年 元旦 恩津宋氏 大宗會 派有司 一同

延安公派 宋奇善  
監役公派 宋佐永  
霽月堂文僖公派 宋寅昇  
護軍公派 宋夏永  
高敞公派 宋九永  
安素堂公派 宋宇永  
三嘉公派 宋錫哲  
三嘉公派 宋又永  
將仕郎公派 宋翰燮  
松月齋公派 宋福永  
醉翁堂公派 宋寅元  
忠順衛公派 宋三德

忠順衛公派 宋鎬範  
進士公派 宋錫煥  
通政公派 宋繁永  
松窓公派 宋寅鳳  
松窓公派 宋寅庚  
四友堂孝貞公派 宋鎮鴻  
四友堂孝貞公派 宋鎮适  
僉使公派 宋瑞鎬  
清風公派 宋百淳  
慈山公派 宋利永  
雙谿堂公派 宋哲基  
同春堂文正公派 宋龍淳

同春堂文正公派 宋萬淳  
判官公派 宋斗植  
秋坡公派 宋熙遠  
秋坡公派 宋泰鏞  
野隱忠顯公派 宋文鎬  
氷壺公派 宋龍鎬  
負喧堂公派 宋在鋼  
珍山公派 宋京鎬  
尤庵文正公派 宋永文  
尤庵文正公派 宋基鎬  
長城公派 宋永來  
茂朱公派 宋昌憲

牟隱公派 宋在東  
牛峰公派 宋道憲  
圭庵文忠公派 宋聖鎬  
三杞堂公派 宋在元  
東波公派 宋在茂  
潛夫公派 宋秉茂  
後庵公派 宋珠永  
主簿公派 宋信憲  
將仕郎公派 宋弼鎬  
榮川公派 宋偉根

능천(櫟泉) 송명흠 배위  
증 정부인 청풍김씨

以堂 成彬

1. 자료 발견 계기

이 자료는 「송능상 부인전」을 보면서 운평 송능상과 관련 있는 능천 송명흠의 묘갈명을 찾기 위하여 『朝鮮朝 宋山林의 研究』를 살펴보다가 아들 시연이 지은 「능천 송명흠 묘갈 추기」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다.

「추기」에는 묘갈에 기록되어있지 않은 배위 청풍김씨 부인에 대한 자세한 행적이 있어 종원들에게 소개한다.

증 정부인 청풍김씨에 대한 기록은 녹문 임성주가 지은 「능천 송명흠 묘갈」에 빠져있다.

후에 아들 시연은 집안 대소가에서 기리면서 전해오는 어머니에 대한 아름다운 행적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묘갈 추기」에 기록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은진송씨 가문의 할머니들 이야기』에 추가로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종원들은 관심을 두고, 집안에서 전해오는 할머니들 이야기를 발굴하여 대중중에 연락 바랍니다.

2. 내용

송명흠(宋明欽)은 자가 회가(晦可)이고 시호는 문원(文元)이며 능천(櫟泉)은 호이다. 동춘당의 현손이고 묵옹공(默翁公) 요좌(堯佐)와 어머니는 파평 윤씨[정랑 윤부(尹扶)의 女] 사이에서 1705년(숙종 31) 10월 21일 한양(漢陽) 제생동(濟生洞)에서 2남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용모가 특이하여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말을 하였고, 돌 때 묵옹공이 무릎에 앉히고 문학을 가르쳐 주니 곧 이해하고 잊지 않았다고 한다.

5~6세에 이미 효경(孝經), 논어(論語) 등을 모두 통달하니, 보는 이들이 모두 기특하게 여겼다. 이어 도암(陶庵) 이재(李穡)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다.

16세 때인 1720년(숙종 46) 1월 갑곡 김육의 현손인 김도흠의 딸 청풍김씨와 혼인하였다. 이해 6월에 숙종이 승하하였다.

17세 때인 1721년(경종 1)에 신임사화(辛壬士禍)가 일어나자, 그것을 피하여 낙향하는 아버지를 따라 옥천(沃川), 도곡(塗谷), 종촌(宗村) 등지로 옮겨 다니며 살았다.

1739년(영조 15) 학행으로 추천되었으며, 1746년 시강원 자의를 배수하고, 충청도 도사, 지평(地坪), 장령(掌令) 등이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으며, 1754년(영조 30) 특별히 서연관(書筵官)을 제수하였으나 글

을 올려 사양하였다.

그가 51세 되던 1755년(영조 31) 옥과(玉果) 현감에 임명되었을 때는 늙은 어머니의 간청에 못 이겨 나아갔으나, 모친상을 당하여 사직하였다.

3년 상을 마친 뒤에 집의(執義), 승지(承旨), 참의(參議) 등의 벼슬이 주어졌으나 모두 글을 올려 사양하였다.

만년에 정국이 다소 안정되어 1764년(영조 40) 부호군(副護軍)에 임명되고 찬선(贊善)으로 경연관(經筵官)이 되어 정치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영조의 비위를 거스르는 발언을 하여 파직되었다.

능천은 학문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재(李穡), 민우수(閔遇洙), 송사능(宋士能), 김양행(金亮行), 신소(申韶) 등과 서신으로 학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1768년(영조 44) 7월 13일 그가 타계한 뒤에 관직이 다시 회복되었으며,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배위 청풍김씨[1705년(숙종 31) 11.17~1792(정조 16) 9.20]는 군자 감정 도흠의 따님이신데 자손이 없어서 한정공 문흠의 차자 시연(時淵)을 데려다가 아들로 삼았다.

계배 창령성씨[1726년(영조 2) 11.22~1788년(정조 12) 3.8]는 창성군 정평공 후손 한창(漢昌)의 따님이다.

슬하에 3남 2녀가 있는데, 아들은 희연(希淵) 약연(躍淵) 이연(履淵)이고, 사위는 조성달 김희주이다.

묘소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갈산리 간좌(艮坐)에 배위와 합폄(合窆)하였다.

(\* 후릉에 있던 자제 시연(時淵) 산소, 금산 수당리에 있던 손자 계간(啓幹) 산소는 80년대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전 1리 배오개 옥포초등학교 뒷산 선영에 이전 합장하였다.)

가장(家狀)과 유사(遺事)는 자제 시연(時淵)이 짓고, 묘지는 이재(姨弟) 임성주(任聖周)가 지었으며, 묘소지(墓小誌)는 손자 계간(啓幹)이 지었다.

도학과 절의를 높이 사서 성천서원(星川書院)에 배향되었으며 문원(文元)의 시호가 내려지고 부조지전(不祧之典)을 입었다.

문집에 『능천집(櫟泉集)』이 있다.

[묘갈추기(墓碣追記)]

선비 정부인 김씨는 가계가 청풍에서 나왔는데 기묘명현 대사성 식(金湜)의 후손이시다.

증조는 부원군 충익공 휘 우명이시고 조는 판서 정희공 석연이고 아버지는 군자 감정 도흠(道治)이고 비는 창원황씨 안악군수 명석의 따님이다.

부인은 1705년 11월 17일에 아들 명흠을 낳았다.

맑고 밝기가 얼음과 옥 같고 성품이 단정하고 한결같으며 성실하고 씩씩하여 어려서부터 행동에 잘못이 없고 조모 어부인에게 길러졌다. 정희공이 자손이 심히 많았으나 부인께서 가장 사랑하시어 마치 손바닥에 있는 구슬같이 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부형과 종족들이 또한 사랑하고 중히 하지 않는 이가 없어서 동배(同輩)에서 뛰어났다.

돌아보건대 부인께서는 더욱 두려워하고 조심해서 항상 가득 찬 그릇을 잡는 것 같이 하였다.

나이 열여섯에 우리 선군께 시집오셨는데 선군께서 덕의 그릇이 이루어져 움직임에 예법을 준수하였는데 부인께서 능히 덕을 짝해서 아름답게 하니 비록 자기 방에서 혼자 있더라도 상대하기를 손님과 같이하여 전혀 나태한 모양을 하지 아니하였다.

할아버지께서 성품이 엄하시어 잘했다고 허락하심이 적으신데 부인에게서 이르러서는 매양 칭찬하고 허여하기를 마지아니해서 말씀마다 반드시 현부라고 일컬으셨다.

우리 집은 본디 청한(淸寒)한데 부인께서는 부귀한 덕에서 나서 자랐으니 되 맨발과 나물국을 편안히 하기를 마치 본래 있었던 것과 같이하였다.

옥천의 깊은 골짜기(도곡 : 塗谷)에 들어가서 생계가 심히 어려워지자 부인께서 종을 거느리고 채소밭을 지시해 개간하시고 손수 호미질해서 김매고 다스리시니 계부 한정공(閒靜公 : 文欽)께서 마침 이것을 보시고 시를 지어 그 사실을 읊어서 집안에서 이것을 전하며 미담으로 삼았다.

조비께서 여러 해 병을 앓으셨는데 부인께서 이르나 늦으나 붙들고 호위하시며 음식을 반드시 제때에 준비하고 약을 친히 드려, 감히 잠시라도 결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동서들이 화합해서 동기간과 같이 하고 집안의 무리들을 다스림에 정연하게 조정을 다스리듯 하니 사람들이 모두 공경하고 복종해서 가정내에 사인 말(이간질하는 말)이 없더라.

집은 비록 가난하나 있고 없는 것으로서 선군에 관계치 아니하였다. 선군이 배풀기를 좋아하셔서 궁하여 염을 할 수 없는 자에게 문득 옷을 벗어 수의를 하게 하니 부인께서 이것을 따르고 바로 순종하여 조금도 아까워하는 생각이 없었다.

선군의 상사에 이르러서 광주리에 남은 옷이 없으니 보는 자가 감탄하였다.

불효한 죄지는 자식으로 본 생가(한정당 문흠)의 부모를 여의고 자매 형제가 모두 부인에게서 길러지매 부인께서 어루만져 사랑하기를 깊고 진지하게 하셔서 돌보신 은혜와 옳은 방법으로 가르쳐 자기가 낳은 것과 다름이 없게 하시었다.

선군께서 말년에 아들이 없어 계배(창령성씨)를 두심에 부인이 그를 대접하기를 한결같이 정성으로 하였다. 또한 허물이 있음에도 또한 가르치고 꾸짖기를 조금도 틀리지 않게 하였다.

시연이 늦게 태어나 불효하여 무릇 부인의 평소의 이름다운 덕과 지극한 행동을 백의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고 오직 생존함에 진신가(摺紳家 : 고관대작 집안)의 크게 우러르는 바가 되었고, 돌아가신 뒤 집안 간에서 전하여 기리는 바가 되어 하나로는 여중 군자요, 또 하나로는 규문 모범이라고 하였던 즉, 부인의 평소의 지닌 바를 대략 알 수 있다.

부인께서 임자(壬子 : 1792)년 9월 20일에 세상을 떠나시니 향년 88세였다. 이해 12월에 선군(능천 송명흠)의 산소를 옮겨서 연기 갈산 동북의 언덕에 받들어 모시고 합하여 부치기를 예의에 어긋남 없이 하였다.

선군(先君 : 돌아가신 아버지)의 성과 휘는 이미 원지(原誌)에 보였고 1776년(정조 원년)에 특명으로 유곤록판(裕昆錄板)을 원록 퇴광에 보관하라 해서 1796년(정조 20)에 사손(嗣孫)이 기록한 것을 가지고, 예관을 보내어 가묘에 제사하게 하였다.

당저(當宁 : 그때의 임금) 1804년(순조 4)에 산림 도헌(都憲) 이직보의 상소에 증 이조판서 겸지의금부사 성균관 췌주 오위도총부도총관 시호 문원(文元)을 명할 것을 청함으로써 인해서 부인도 따라서 증직하였다.

오호라. 애통하도다. 이제 녹문 임공이 지은 묘지를 현각(顯刻)하고서 계간으로 하여금 이것을 쓰노라. 시연은 목사요. 계간은 대신의 추천으로 교관을 제수하고, 홍면첩은 교리요. 조만영(趙萬永 : 익종비 신정왕후 조대비의 부)은 진사요, 희연의 아들은 계화요, 여서는 이재풍이요, 이연의 아들은 계채요, 여서는 김익순이요, 조성규의 아들은 진간이고 딸은 이노향이다.

내외 자손이 많아서 다 쓰지 못한다. 불초남 시연은 읍혈(泣血) 하면서 삼가 기록한다.

송정 기원후 179년 병인(1806 : 순조 6) 월 일 세움

(송성빈역편, 송시연 「능천 송명흠 묘갈 추기」, 『朝鮮朝 宋山林의 研究』, 1997.4.9. p276-279, 향지문화사)

# 은진송씨 선조가 모셔진 서원사우(9회)

## 송창공파 공사원 송 구 영

### Ⅶ. 상곡사象谷祠

#### 1. 현황

-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동구 주산동
- 창건연대 : 1955년
- 배향인물 : 송기수宋麒壽 독향
- 향 사 일 : 음력 3월 9일. 9월 7일

#### 2. 연혁

조선 명종 때의 학자이자 충신인 추파 송기수秋坡宋麒壽의 위패를 봉안하기 위하여 건립된 사우로 1955년 9월 15일 지역유림 정진국鄭鎭國, 이규하李圭夏가 사우 건립을 발의하여 그 해 10월에 지역유림 모임인 향유회鄉儒會의 의결을 거쳐 상곡사 창건에 관한 통문이 전국 서원과 명궐名闕에 보내졌고 추파 사후 400여 년이 지나서 후손과 지방 향유들에 의하여 창건되었다.

니했다.

1524년 18세 때 대사헌 채침蔡沈의 딸 평양 채씨와 결혼하고 1531년(중종26) 25세때 식년 생원시에 3등으로 합격하고 진사 3등으로 합격하여 1534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춘추기사관 예문관 봉교로 승진하고 옥당玉堂의 선발에 참여하고 호당湖堂에 들어가 사가 독서 하였는데 그의 명성이 날로 높아지자 1537년 김안로가 자기편에 끌어들이려고 유명한 명향용목을 기증하였으나 이를 받지 않자 김안로 일당에게 진로가 막혔다.

1538년(중종33) 홍문관에 들어가 수찬 교리 그리고 이조정랑 문학으로 있다가 5월에 보덕으로 전역 되었다. 이듬해 강원도 어사에 임명되었다가



▲상곡사 현판



▲상곡사 사당

#### 3. 인물 약전

##### 1) 송기수宋麒壽 (1507~1581)

조선 선조 때의 문신 자는 태수台叟 호는 추파秋坡 본관은 은진이다. 가평군수 세충世忠과 주계군朱溪君 이심원의 따님 사이에서 태어났다. 용모는 백설白雪 같이 깨끗하고 특히 귀가 커서 바라보면 신선과 같았다. 소년 시절부터 아이들과 놀기보다 선생이나 어른들과 공부하고 토론하기를 좋아했다.

평생 학문을 좋아하여 성리학을 공부하면서 틈틈이 제자백가의 책을 읽어서 두루 정통하였다. 학문에 뜻을 두어 동주 성제원과 친하게 교류하면서 예가 아니면 행하지 아

1540년 의정부 검상 사인 필선으로 겸직 승진하고 1541년 4월에 사헌부 장령 집의 충청도 어사 12월에 홍문관 응교로 배수되었고 1543년 봄에 홍문관 직제학 가을에 홍문관 전한에 임명되었고 1544년 봄에 홍문관 직제학에 제수되고 가을에 동부승지로 승진하였다.

1545년(인종1) 정월에 좌부승지에 승진하고 4월에 우부승지 6월에 도승지로 승진하였다.

윤원형이 일으킨 을사사화 후의 논공행상에서 녹훈에 올라 추성위사보익공신 3등에 책록되고 덕은군에 봉해져 수차 거절하였으나 이언적 등이 권유하여 받았다.

12월에 경기감사로 나갔다가 1546년(명종1) 3월에 신병으로 경기감사를 사직하고 훈勳을 사양했으나 윤허 받지 못하였다.

1549년(명종4) 43세 윤원형 이기 등이 임금에게 간하여 흉년이 극심한 강원도 감사로 보냈으나 추파는 병을 무릅쓰고 부임하여 선정을 펴고 면직을 자청하여 돌아왔다.

1550년 정월에 형조참판에 제수 되었으나 신병을 구실로 불취하고 9월에 모부인 상을 당하여 회덕으로 돌아와 3년간 여묘 하였다.

1553년 9월에 복을 벗고 10월에 호조참판에 제수 되었으나 불취하고 1554년 퇴계와 서신으로 교유하고 1555년 이조참판에 제수 되었다가 곧 사직하고 1556년 4월에 형조참판에 임명되었다.

1557년 2월 성절겸주청사聖節兼奏請使로 차출되어 남경에 갔다가 11월에 돌아왔다.

1559년(명종14) 명종의 특명으로 한성부 판윤이 되었다가 대사헌이 되었다. 당시 명종은 윤원형을 싫어하여 사림의 인물을 뽑아 대간에 배치하는 데 그중 한 사람이었다. 6월에 예조참판에 제수 되었다가 대사간으로 옮겨 이듬해 사헌부 대사헌 지재교 겸 경연 참찬관 춘추관 수찬관에 임명되었다.

1563년(명종18) 정월에 좌참찬에 임명되고 3월에 예조판서 겸 동지경연 춘추관사에 임명되었고 10월에 대사헌 12월에 다시 좌참찬으로 옮겼다.

1564년 7월에 이조판서 겸 지경연 춘추관 성균관사에 임명되고

1565년(명종20) 문정왕후가 죽자 명종은 윤원형의 관직을 삭탈하여 귀양 보내고 을사사화 이후에 죄를 입은 당대의 명사들을 다시 부르는 등 인재를 고루 등용하였다.

1566년 정월에 형조판서 2월에 예조판서 7월에 다시 이조판서에 임명되고

1567년(명종22) 이조판서를 사임하고 좌참찬에 임명되어 명사明使의 관반사館伴使에 차출되었다.

1568년(선조1) 62세 2월에 이조판서 겸 지경연 의금부사에 임명되어 유배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을 발탁할 것을 계청하였고 다음 해 명사의 관반사직을 사퇴하고 2월에 좌참찬에 임명되어

경연에 입시 하였으며 가을에 실록청의 당상관에 차출되어 명종실록의 편수에 참여하였다.

1570년(선조3) 3월에 다시 이조판서에 임명되었다가 5월에 사임하고 1571년 65세 3월에 형조판서 겸 춘추승문원 제조에 임명되어 죄수들을 많이 석방하여 감옥이 텅 비어 도민都民의 칭송이 높았고 세 번의 사구라는 별칭이 있었다.

1572년 정월에 병조판서를 제수받았으나 불취 했다.

1573년 67세 3월에 형조판서를 제수 받고 내훈과 황화집皇華集을 인쇄하였고 6월에 공조판서 겸 예문관 제학에 배수하였으나 병으로 사직을 고 하였다. 그 해 12월에 또 좌참찬 겸 경연 동지중추부사를 배수하였다.

1574년 2월에 호조판서에 배수되었다가 3월에 병환으로 사직하고 치사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1577년(선조10) 71세 정월에 이조판서를 제수하였으나 배수하지 않고 세 차례 사양하여 윤허를 받았다 다시 좌참찬을 배수하고 11월 2일 삭훈 하라는 전교를 받았다.

소계 疏啓를 올린 것이 20여 회가 되는데 비로소 윤허를 받아 소원을 이루어 규암 송인수가 화를 당한지 30여 년이 지났으나 묘소에 아무런 기록이 없어 통탄하게 여겨 왔는데 직접 묘문 墓文을 지어 돌에 새겨 세웠다.

1578년 72세 정월에 예조판서를 배수하고 또 공조판서를 배수하였으나 병으로 사양하고 나 가지 아니하였다.

1579년(선조12) 73세 정월에 벼슬에서 물러 날것을 간청하였으나 윤허받지 못했다.

1580년(선조13) 74세 7월에 병환이 침중하여 겨울이 지나도록 차도가 없어 12월에 임금이 내의內醫를 보내어 문병하고 또 약을 내리면서 유시 하였다.

1581년(선조14) 75세 정월 원조元朝에 자제를 명하여 세 가지 유계遺戒를 쓰라고 하였다. 첫째 시호諡號를 청하지 말고 둘째 서원書院을 건립하지 말며 셋째 시론時論에 아부하지 말라고 하고 3일 무진에 정침에서 운명하였다. 선조임금은 어진 노재상이 돌아가셨으니 내 놀랍고 애도하여 별도로 부의를 전하려 하니 계사를 올리게하라 하고 특별히 승지를 보내어 조의를 표하고 제문을 내렸다. 3월에 회덕읍 동쪽 석장산 곤좌의 언덕에 장사를 모셨다.

<다음 호에 계속>

성금 및 연회비 납부자 명단 (2022. 10. 22~ 12.19)

◆대중회 발전 성금

송영빈	대전 중구 태평로	100,000
송용길	대전 동구 대청호수로	100,000

◆고액 연회비 납부자

송재길	세종 다정북로	200,000
송병대	대전 중구 금동길	100,000
송인승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당로	100,000
송대영	충남 예산군 광시면	100,000
송재웅	서울 서초구 효령로	100,000

◆개인 연회비 납부자

서울특별시

송차량	서울 금천구 두산로	50,000
송영옥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30,000
송영기	서울 서초구 매향로	30,000
송영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000
송상호	서울 은평구 연서로	30,000

대전광역시

송용두	대전 중구 운남로	30,000
송봉헌	대전 동구 대청호수로	20,000
송길남	대전 동구 비래서로	20,000
송석찬	대전 동구 충무로	20,000
송기수	대전 서구 관저북로	20,000
송석도	대전 서구 괴정동	20,000
송달현	대전 서구 용화4길	20,000
송광영	대전 중구 선화로	20,000

강원도

송영만	강원 원주시 남산로	20,000
-----	------------	--------

경기도

송영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30,000
송영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0,000
송원근	경기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30,000
송석문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0,000
송영일	경기 파주시 법원읍	30,000
송재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0,000

전라북도

송웅빈	전북 익산시 왕궁면	50,000
송성호	전북 익산시 서동로	20,000

경상남북도

송명진	경북 경주시 내남면 내외로	20,000
송광태	경남 창원시 서안구 원이대로	50,000
송재석	경남 창원시 진해구 화천동	50,000

주소 및 성명 미상

송영환	11월 3일 농협입금	30,000
송재홍	12월 1일 하나은행 입금	20,000

◆기타 안내

·지로 입금 시

동명이인이 많은 관계로 주소 확인이 불가하오니 입금 시 독자번호와 이름을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으로 입금 시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현금 입금 시 대중회로 반드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변경되면 대중회로 반드시 연락바랍니다.

종보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대중회에서는 종보를 통하여 종원 독자 여러분께 종중의 발전을 홍보하고 은송인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종보의 발전을 위하여 종원들이 적극적으로 종보 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기사 제보를 요청합니다.

보내 주신 원고는 편집위원 회의를 거쳐 게재하겠습니다.

- 다 음 -

1. 내용 :

- 1) 각 파종종의 회의, 행사, 재실이나 산소 정화 등
- 2) 학위취득이나 각종 시험 합격
- 3) 승진, 전보, 임관, 개업 등
- 4) 각종 미담 사례 등
- 5)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반드시 관련 사진 첨부.

2. 보낼 곳 :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161, 원일빌딩 6층 은진송씨대중회

팩스 042-633-0531 / 이메일 ejs0835@hanmail.net

3. 연락처 : 전화 042-256-0835

송창공과 송하영(宋河永)씨 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회장 취임

송창공과 송하영(宋河永)씨가 2022년 11월 1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제33대 회장에 취임했다.

송하영 신임 회장은 “열정적인 적십자 봉사원을 비롯한 적십자 가족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인도주의 손길을 내미는 적십자가 될 수 있도록 대전세종지사의 회장직을 성실히 수행 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송 회장은 고 송석철(宋錫哲) 전 송창공 중증회장과 양촌 허복희 여사의 1남 2녀 중 장남으로 시조로부터 24세손이

다. 국립 한밭대학교 총장, 행정 중심 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 자문위원,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립 한밭대학교 명예교수, 대한건축학회 참여 이사, 계룡장학재단 이사, (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고문, 천주교 대전교

구 건축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송 회장의 임기는 올해 11월1일부터 3년간이며, 취임식은 4일 오후 2시에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대강당에서 열렸는데,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민 애도 기간임을 감안하여 외부 인사를 초청하는 공식 취임식은 취소하고, 적십자 가족만으로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송창공과 송우영)

2023년 계묘년 달력 제작배부

대중회에서는 작년부터 제작 배부하여온 “은진송씨 대중회” 달력을 2023년분을 제작 배부 하였다.

2022년도에 800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나, 달력이 내용이 유익하고 추가 요청이 쇄도하여 금년에는 1000부를 제작하여 은송 39개파와 대외적 홍보용으로 배분하였다.

신년 달력에는 월별로 은송의 귀중한 보물 등의 문화재 사진을 실었고 특히

6월에는 새로이 대한민국임시정부 행정 수반 제6대 주석인 신암 송병조선조님의 동상 사진을 실어 은송의 훌륭한 선조님에 대한 숭조정신을 함양하였다.



종보 편집위원 위촉

대중회에서는 2022년 12월 14일 대중회장실에서 새로운 종보 편집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에 연임으로 위촉된 종보 편집위원으로는 위원장에 언론사 편집국장 출신



인 진산공과 송재역을, 그리고 위원으로는 송창공과 송구영, 동춘당문정공과

송성빈위원을 연임시키고, 사우당효정공과 송진팔을 새로운 종보 편집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어서 대중회장은 신년도부터 발행되는 종보 편집에 대한 방향 제시와 새로 위촉된 편집위원들의 종보편집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정정 보도>

종보 191호에 잘못된 내용을 정정보도합니다.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8면 가운데 둘째 줄	송인수(1487-1547)	송인수(1499-1547)
8면 우측 9번째 줄	성균관 대사성	사헌부 대사헌 증직 이조판서 대제학

<각 종중 임원 개선>

종중	날짜	내용
안소당공파 종중	2022. 11. 2	공무원 겸 파유사 송석근을 송우영으로
사직공 종중	2022. 11. 3	회장 송길남을 송기수(주부공파)로
빙호공파 종중	2022. 11. 15	공무원 송명호를 송재은으로

= 恩宋의 文化財 (16회) =

42. 청주 송상현 묘소 및 신도비

- 종 목 : 충청북도 기념물 제66호
- 분 류 : 유적건조물/무덤/무덤/봉토묘
- 수량/면적 : 1곽
- 지정일 : 1984. 12. 31.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의동 산 1-32
- 소유자 : 여산송씨종중



▲송상현 신도비각

조선 중기의 충신 천곡(泉谷) 송상현(1551~1592) 선생은 여산송씨이다. 묘소 입구에는 신도비(神道碑:왕이나 고관 등의 평생 업적을 기리기 위해 무덤 근처 길가에 세운 비)가 있는데, 훌륭한 우리 선조님 우암 송시열 선조님께서 글을 짓고 동춘당 송준길 선조님께서 글씨를 쓴 것이다. 천무선생은 선조 9년(1576)에 문과에 급제한 후 여러 관직을 거쳐 1591년 동래부사가 되었으며, 당시 잦은 왜구의 노략질과 왜적의 침입 소문에 대비하기 위하여 성곽을 수리하고 군사훈련을 시켰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동래성에 침입한 왜병과 싸우다 전사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그의 충적을 기리어 이조판서의 관직을 내렸다. 그리고 충렬사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으며 충신문을 세웠다. 강촌 목방산에 자리잡은 이 묘는 원래 동래에 있던 것으로 광해군 2년(1610)에 지금의 위치로 옮겨졌다. 주위에는 상석과 문인석 등이 세워져 있으며, 묘의 오른쪽에는 비석이 놓여 있다.



▲송상현 신도비

43. 보은 상현서원

- 종 목 : 충청북도 기념물 제호
- 분 류 : 유적건조물/교육문화/교육기관/서원
- 수량/면적 : 1동
- 지정일 : 1984. 12. 31.
- 소재지 : 충북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 304번지
- 소유자 : 충북향교재단

충암 김정(1486~1520)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김정은 조선 전기 문신이며 학자로 이조참판, 대사헌 등을 거쳐 형조판서를 역임하였다. 그림과 시문에도 능하였고 조광조와 함께 사림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이 서원은 명종 10년(1555)에 ‘삼년성서원’ 으로 세웠고 광해군 2년(1610)에 국가 공인의 사액서원으로서 ‘상현’ 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상현서원 전경

현종 13년(1672)에 지금 있는 자리로 옮겨 세우면서 성운·성제원·조현·송시열 등을 추가로 모시게 되었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고종 8년(1871)에 폐쇄된 뒤 1896년 ‘장례원’ 이란 이름으로 다시 세웠으며 1986년 해체·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강당은 서원철폐령으로 폐쇄될 때 ‘보은향교’ 로 옮겨 향교의 교육 장소인



▲상현서원 내삼문



▲상현서원 사당

명륜당으로 사용하여 왔다.

나지막한 산을 뒤로하고 세운 이 서원은 작은 규모의 사당과 비석이 안치된 비각, 출입문으로 구성된다. 정문을 들어서면 왼쪽에 앞면 1칸·옆면 1칸 규모의 비각이 있고 뒷편으로 별도의 담장을 두른 사당이 있다. 사당에는 김정의 위패를 중심으로 좌우에 성운·성제원·조현·송시열 등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자연석으로 쌓은 기단 위에 세웠는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人)자 모양인 맞배지붕으로 꾸몄다.해마다 2월과 8월에 제사를 지낸다.

44. 옥천 송시열 유허비

- 종 목 : 충청북도 기념물 제45호
- 분 류 : 기록유산/석각류/금석각류/비
- 수량/면적 : 1기
- 지정일 : 1979. 09. 29.
- 소재지 : 충북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134-2
- 소유자 : 은진송씨종중

유허비란 한 인물의 행적을 기리고, 그의 옛 자취를 밝혀 후세에 알리고자 세우는 비로, 이 비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송시열 선생을 기리고 있다.

우암 송시열(1607~1689) 선생은 옥천 지방에서 출생한 조선의 대유학자이다.

그의 유학사상은 이이 율곡선생의 학통을 계승하여 기호학파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조선 인조 대 부터 숙종대에 이르는 4대에 걸친 노론의 대표로서 정계에서 크게 활약하였고, 뛰어난 학식으로 많은 학자를 길러내기도 하였다. 비는 현재 비각 안에 보존되어 있으며 네모반듯한 받침돌 위로 직사각형 비몸을 올리고 지붕 모양의 머릿돌을 갖춘 모습이다.



▲송시열 유허비



▲송시열 유허 비각

비몸 앞면에는 ‘우암송선생유허’ 라는 비명칭을 해서체로 새겨 놓았고, 뒷면에는 ‘송정후삼술이월일’ 이라 새겨 건립연대를 밝히고 있다. 비를 세운 시기는 조선 영조 30년(1754)에 세워졌다.